

한국근대만화의 예술적 특징에 관한 연구

- 1900년대 초부터 1945년까지 작품의 조형적 측면을 중심으로 -

김종욱

초록

본 논문에서는 한국 근대사회 대중문화의 신총아(新寵兒)로 자리매김 된 만화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사회적 의미를 밝혀 한국만화의 역사적 위상 정립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만화가 학문으로서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한국 사회 속에서 독특한 대중문화장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태동기부터 한국만화가 갖는 역사적 위상을 고찰하고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만화는 시각문화로 문맹률 높던 근대한국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목적을 훌륭하게 실현한 장르였다. 이 시기 근대만화의 등장은 격변기(激變期) 대중을 계도(啓導)하며 주권회복운동을 펼쳐 나갔던 개화파 지식인들에게 중요한 선전·교육의 도구였으며, 역으로 친일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매체를 운영하던 신문사(출판사)들에게는 중요한 독자 확보의 수단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1900년대 초반부터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맞는 시기까지를 한국만화의 태동기로 보고 그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한 것이다.

주제어 : 한국근대만화, 조형, 만화사

1. 들어가며

지금까지의 근대만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시사만화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고, 대표적인 작품으로 대한민보의 '이도영 삼화'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새로운 언론매체인 신문이 확대되는 시점에 등장한 시사만화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사상)적

의미를 연구하여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르 특성에서 보이는 '사회성'이 독립운동에 기여한 역사적 의미라는 측면에 대한 연구가 근대만화 연구의 주요한 화두였다고 할 수 있다. 2002년에 발표된 장승태의 '20세기 전반 대한민보와 동아일보의 시사만화 연구-항일 계몽적 성격을 중심으로'와 2000년 발표된 정희정의 '대한민보의 만화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2004년에 발표된 손상익의 '한국신문시사만화사 연구'도 풍자성과 사회비판적 역

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2001년 발표된 신명직의 '안석영의 만문만화 연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국 근대만화에 대한 연구는 시사만화가 한국사회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만화가 학문적 영역에서 타 장르와 구별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만화만이 갖는 독특한 표상(表象)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만화의 역사성과 독창성에 대한 논증으로 근대 한국만화의 조형적 특성이 갖는 독특한 형태적 표현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만화는 그 형식적 특성과 장르적 특성을 살펴볼 때 근대의 상징이라 볼 수 있다. 한 사회가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매체의 역할은 지대하다. 또한 긴 역사 과정 속에서 한국만화는 변모하고 양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 왔었다. 초기 발생과 정착과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그 뿌리를 밝혀, 오늘의 현주소를 반추(反芻)해 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1.2 연구과제 및 방법

본 논문은 한국만화 태동기(1900년 초부터 1945년 해방까지) '근대만화'가 갖는 특징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 특징에 대한 연구는 한국근대만화의 내용적 측면뿐 아니라, 형태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밀려들어온 해외 신문물의 영향을 받으며, 한국만화가 뿌리내려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성격을 규명하여 한국사회 속에서 만화가 갖는 역사적 위상을 정립해 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한 연구과제로

첫째, 태동기(1900년 초부터 1945년 해방까지) 근대만화에 대한 개괄적 고찰을 시도한다. 개괄 정리를 통해 당시 만화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함이다.

둘째, 한국근대만화를 분석하여 그 속에 담겨 있는 형태적 표현기법의 특징을 밝히고, 근대만화의 연출기법 및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점에서 이미 연구된 논문과 단행본 그리고 신문자료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였고, 문학·사회학·근대 미술사 등 인접 학문¹⁾의 연구 자료를 기본 연구 텍스트로 하여, 각 자료의 내용을 분석의 기본 틀로 삼았다. 또한 근대만화의 특징에 대한 부분은 자료 분석을 통해 논점을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2. 한국 근대사회와 만화

한국 근대만화의 출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필요로 했던 격변기 한국 근대사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²⁾ 이것은 곧 왕권을 중심으로

1) 2003년부터 문학, 사회학 등에서 근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근대의 책읽기』, 『서울에 탄소흔을 허하라』,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 등 한국근대사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 사회상을 분석한 연구서들이 출판되었다. 또한 이미 그 이전부터 한국미술사를 초기 서양화 유입과정 등 근대사 분석을 통해 연구한 서적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2)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격변기는 구한말 시기와 일제강점기이다. 한국 근대사는 연구자의 정치·사회적 관점에 따라 시대 구분에 차이가 나며, 이에 대한 학계의 통념화된 구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특히 학자에 따라 그 시작 시점을 구분하는 경계는 다양하다. 그 입장 차이를 구별하고, 정리하는 것은 본 논문의 요점이 아니다. 다만, 한국만화의 태동기인 근대만화를 분석함에 있어 필요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연구를 위해 근대한국의 격변기를 살펴보고자 하고, 이 시

로 한 반상(班常)의 구분을 통해 지배되던 조선의 봉건사회가 근대화의 격랑(激浪) 속에서 기존의 지배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사회체제를 형성해가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분석이며, 이 새로운 사회체제를 가능하게 하였던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등장에 대한 연구이다. 또한 이 분석은 한국 근대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었던 만화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 시대상황에 대한 접근이다. 이것은 결국 시대적 배경에 대한 고찰이 '한국 근대만화 출현'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필연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2.1 한국근대만화의 출발

현재까지의 선행연구에서 한국 근대만화의 시작은 대체적으로 『대한민보』의 이도영의 삽화로

기는 구한말시기와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한다.

첫째, 구한말(舊韓末)은 대한제국성립 및 한일합방 직전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1897년~1910년).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되었다. 대한제국은 독립협회와 친러파(수구파)가 연합하여, 칭제건원(稱帝建元)을 추진하며, 고종을 황제로 추대하고 조선의 국제적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 두 세력의 연합은 입헌군주제(독립협회)와 전제군주제(수구파)의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과 친러세력이었다. 수구파의 외교관(外交觀) 등의 차이 때문에 결코 오래갈 수 없었다. 대한제국 성립 후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라는 대규모 민중집회를 통해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租借)를 막고, 일본의 석탄과 철수 등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의 기틀을 만들고자 했던 독립협회의 노력은 대(代)러시아정책에서 수구파와 대립하며, 독립협회 해산으로 마감한다. 이후 허약한 대한제국은 을사5조약(乙巳五條約)과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을 거치며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변화한다.

둘째, 일제강점기로 한일병합 조약부터 일제의 무조건 항복을 통한 한반도의 독립까지의 시기를 말한다(1910년 ~ 1945년). 한일병합(韓日併合)조약안의 체결로 한반도는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다. 8개조로 된 이 조약은 제1조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 35년의 시기는 3기로 나누어진다. 제1기는 무단통치시기(1910년~1919년), 제2기는 문화정책표방기(1919년 3·1운동 이후 ~ 1931년), 제3기는 병합기지화 및 전시동원시기(1931년~1945년)이다.

규정되고 있다. 물론 이는 한국 근대만화의 연구가 신문만화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것 때문이기도 하며, 1910년 이전의 자료가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 보편적인 선행연구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KOREA

Eine Sommerreise nach dem Lande der Morgenröthe

1894

Ernst von Hesse Wartegg

Mit zahlreichen Abbildungen und einer Spezialkarte Koreas mit den angrenzenden Ländern.

Zweite vermehrte Ausgabe.



Dresden.

Verlag von Carl Reissner.

1894

그림 1. 『코리아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여름철의 여행』, Hesse-Wartegg, 1904

그러나 1906년 『가덩잡지』 제3호의 표지화나, 유길준이 펴낸 『노동야학독본』의 1908년 7월 13일자에 실린 만평 등은 한국근대만화의 초기 작품으로 볼 수 있다.³⁾ 무엇보다 초기 한국근대만화를 정리함에 있어 시선을 끄는 자료는 이해창의 『韓國時事漫畫史』⁴⁾에서 인용된 해외자료이다. 1894년 청일전쟁(淸日戰爭)이 발발(勃發)할 즈음, 조선을 여행하고, 기행문을 쓴 독일인 헤세 바르텍(erunst von Hesse-Wartegg)이 1904년 출간한 그

3) 『가덩잡지』 표지의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의 교훈을 그림으로 구성한 그림과, 『노동야학독본』 만평에서 유길준이 노동자에게 열심히 배워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그림은 만화적 표현기법은 부족해 보이지만, 계몽적 성격은 담은 초기 작품들로 볼 수 있다.

4) 이해창, 『한국시사만화사』, 일지사, 1982, p. 9~11

의 저서<그림 1> 『코리아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여름철의 여행(Mit zahlreichen Abbildungen und
einer Spezialkarte Koreas mit den angrenzenden
Ländern』에서 조선의 정치풍자만화를 보았다는
기록이 있다. “나는 언젠가 어느 한국 사람이 그린
풍자화(Politische Karrikatur)를 본 적이 있다. 그
풍자화는 한 사람의 코리언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
고, 특이한 형태에 있어서 코리어를 의인화하여 풍
자한 것이다. 머리는 아주 작고 대머리에 얼굴은
일그러졌으며 손과 발은 길고 거미줄 만큼이나 가
느다란 반면에 몸체는 끔찍스러운 정도로 비대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코리언(작가)은 이 그림에 대
해 이렇게 설명하였다. ‘보시오. 이것이 바로 가엾
은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는 머리는 우
리의 국왕이고 팔과 다리는 착취 당하기만 하는
백성들이며 살찐 몸뚱이는 관리들 즉 이 나라의
양반들이랍니다.’”⁵⁾ 이 같은 기록은 한국에 이미
1894년에 정치풍자만화가 존재했음을 입증해 주
는 자료이며, 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가 거의
없던 시기에 지식인들 사이에 정치풍자만화를 그
려 주변에서 돌려 본 자료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유추(幼雛)해 볼 수 있다. 이 기록은 우리나라 서
사만화의 역사가 18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대
한민보의 삽화 이전에 조선사회에서 정치풍자만화
가 존재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
다. 다만 이 자료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도판을
발견하지는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이외에도 “선교를 목적으로 발간된 『그리스도
신문』은 제호부터 매우 시각적으로 꾸밈고, 1898

년 『그리스도 신문』에 미국을 소개하는 기사에
삽화를 삽입한 예가 있다. 외국인이 주체가 되어
발간하는 신문이나, 해외 특판원들이 조선에 와서
조선의 정세를 만화로 기사화 하여 본국 신문에
보내는 등의 만화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다만 이를
한국근대만화에 넣어 역사적으로 정리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당시 한국 근대만화를 분석
하는 참고자료로써 유의미성을 갖는다고 본다.



그림 2. 『대한민보』 1910.2.15

잡지 등에 소소하게 나타난 만평자료나 외국인
에 의해 발간된 신문 등에서 보여지는 만화자료가
조선 개화기에 나타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만화
가 대중매체에서 위력을 드러내며 등장하기 시작
한 것은 이도영의 『대한민보』 삽화(1909년 6월2
일 창간)이다. 『대한민보』⁶⁾는 창간호부터 만평을
실었고, 창간호에 『대한민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만평으로 요약하여 표현하였다. 이 만평은
삽화(挿畵)라고 이름붙이고, 연재하겠다는 뜻으로

6) 이 협회는 1907년 11월에 창립된 단체로, 1908년 4월부터는
월간 《대한협회회보(大韓協會會報)》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1909년 3월까지 제12호를 발행하다가 월간지는 중단하고 일
간으로 《대한민보》를 창간하였다. 사장은 오세창(吳世昌)
이었고, 장효근(張孝根)이 편집 겸 발행인이었다. 국권침탈
이 되던 1910년 8월 29일까지 355호를 발행하고 8월 30일자
부터 제호를 《민보(民報)》로 고쳤으나, 이튿날인 8월 31일
제357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네이버 백과사전 인용

(<http://100.naver.com/100.nhn?docid=45986>)

5) 이해창, 『한국서사만화사』, 일지사, 1982, p. 9~11

그 뒤에 일련번호를 붙였다. 이도영은 『대한민보』가 한일합방으로 인해 폐간된 1910년 8월까지 꾸준히 신문에 만평을 실었다.

물론 1년여 기간의 만평 중 졸작도 있지만, 항일계몽적 성격의 만평은 한국 시사만화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 의의를 지닌다. 이미 강화도조약 이후 내정간섭을 시도한 일본은 검열을 통하여 신문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시사만화를 꾸준히 연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한일합방에 대한 전략이 노골화되어가는 시기일수록 탄압은 강화되고, 검열에 걸리면 만평자리를 검은 먹판으로 내보내기도 한 『대한민보』의 저항성은 결국 합방과 동시에 '신문 폐간'이라는 탄압을 받으며 막을 내린다.

이도영(李道榮)은 『대한민보』를 통해 일제와 매판적 친일세력을 원숭이로 희화한 '남의 흉내',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을 즐거워하는 '척사일국' <그림 2>, 친일귀족에 대한 야유를 담은 '벌거벗고 환도 찢군', 조선민족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일제 경찰의 '어, 한 것이 무엇이나, 일제의 침략과 조선민중의 저항을 담은 '뱀에 먹힌 두꺼비' 등 친일에 대한 야유와 일제침략에 대한 비판을 담은 시사만화를 거침없이 그려나갔다.

2.2 무단통치기(한일합방 ~ 1919년 만화)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은 국권을 상실하고,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일제의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는 속에서 애국계몽적 활동을 펼쳐나갔던 다수의 신문과 잡지가 폐간되었다. 조선의 식민지화 이

후 일제는 1차적으로 대중을 장악하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을 폐간한 후 기관지를 통한 일제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 『매일신보』는 초기에는 만화란을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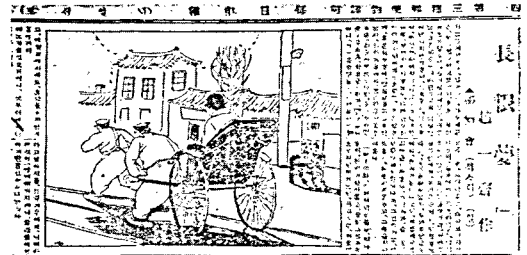


그림 3. 『매일신보』, 1913.5.13



그림 4. 『매일신보』, 1914.8.7



그림 5. 『매일신보』, 1919.7.4

지 않고, 신소설 등의 삽화<그림 3>만 게재하였다. 이후 1914년경부터 일본신문에 게재된 시사만화를 그대로 매일신보에 실었다. 예를 들면 『매일신보』 1914년 9월 18일 만평을 보면, '후슈리(독일)가 점점 비둘기가 되어가는 모양인 것'이라는 만화를 통해 평화를 앞세우며 전쟁을 일으킨 독일을 풍자하고 있는 시사만화를 '내지신문소재

7) 당시 매일신보에는 많은 신소설 작가들이 활동하였다. 이해조는 「화세계(花世界)」(1910년) 등 다수의 작품을, 이인직은 「혈의 누」(1913)의 속편을, 조중항은 변안소설(鐵案小說) 「장한몽」(1913년)을, 이광수는 「무정」(1917) 등을 매일신보에 연재하였다.

(內地新聞所在)라는 글을 달아 매일신보에 연재하였다. 시사만화의 경우는 철저하게 일제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화가 연재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그림4>는 일본의 전설적인 여신 대화(大和/야마토)를 내세우며, 일영동맹(日英同盟), 일로협약(日露協約), 일불협약(日佛協約) 등을 맺으면서 '동양평화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일본'을 표현하고 있다. 한국만화가가 그린 만화라도 매일신보의 입장에서 표현된 만화만이 게재되었다. <그림5>의 김동성⁸⁾의 만화는 '강화조약 체결로 춤을 추는 지구를 표현'한 작품이다. 1919년 1차대전을 종결시킨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은 철저하게 제국주의 승전국들의 입장을 반영했다. 승전국의 하나였던 일본의 입장에서 강화조약은 지구가 춤출 희소식이었고,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연합국이 승전국 일본의 손을 들어 식민지화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불행한 상황으로 즐거움은 있을 수 없었다. 그 이외에는 풍자정신은 사라진 세대만화 정도만이 등장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이 시기 만화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항일계몽적 시사만화를 중심으로 한국만화를 연구해온 시각에서 친일만화 혹은 총독부 기관지에 실린 만화는 한국만화가 아니라는 시각 때문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또한 한국근대만화임에는 분명하고, 이 시

8) 김동성은 젊은 시절 미국 유학 도중 그곳 교민들이 발행했던 신한민보에 만평을 투고한 것을 시작으로, 귀국 후에는 『동아일보』의 창간호 만평을 비롯해 발표한 시사만화작가로 우리 만화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또한 화가는 아니었지만, <서화협회> 화가들과 교류하며, 노수현·안석주 등에게 만화가의 길을 가도록 하였으며, 또 잡지 『동명』에 국내 최초의 만화창작이론을 연재, 집필한 만화 이론가로 우리나라 만화사 조창기의 작품수준 향상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다만 귀국하기 전 매일신보에 세대만화, 시절만화, 미주(米洲)의 인상, 시사만평 등의 작품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기 한국만화가로 유일하게 『매일신보』에서 천리구 김동성이 활동하였던 점으로 보아 이 시기 만화를 간과하고 지나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국내에서 어린이잡지인 『붉은저고리』, 『아이들보이』 등에 '다음엇지'라는 표현의 어린이 만화가 실렸다. 이 만화는 '재미있는 그림이야기' 성격을 띠고 어린이 잡지에 연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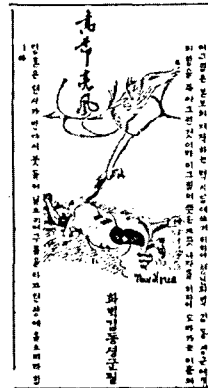


그림6. 『신한민보』
1917.4.5



그림7.
『신한민보』 1918.8.29

조선에서 일제의 언론활동이 금지된 이 시기 해외 한인들에 의해 발행된 『신한민보』⁹⁾등의 언론매체에서 국권회복을 위한 다양한 기사와 논설, 시사만화를 실었다. <그림6>은 김동성의 작품으로 “.....나라를 위하여 도라가는 이분의 영혼은 던사가 반다시 붓들어 날키여 구름을 타고 던상에 울으리라 함이라.”라는 설명문과 함께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뜻을 비장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을 여우와 독사로 표현하고, 일제의 탄압에 쫓

9) 『신한민보[新韓民報]』: 1909년 2월 10일 창간. 구성은 4면으로 1~3면은 국문판, 4면은 영문판이며 매주 수요일 발행한다. 샌프란시스코 교민단체인 국민회의 기관지(초대 총회장 안창호)로 국권회복운동과 관련된 기사와 논설, 한국 소식과 해외 동포들의 동정, 일본제국주의 침략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내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16119>)

겨 조국을 등지고 유랑민으로 변하는 조선민중을 표현하는<그림7> 등 무단통치시기 한반도내에서 불가능했던 조국의 현실을 폭로하고 풍자하며,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만화들을 연재하였다. 신한민보 등 해외에서 발간된 신문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에서 신문을 발간하였고, 그 내용 또한 검열을 받지 않았으므로 자유로운 기사들이 게재되었다. 다만, 국내에 신문이 반입된 이후에는 압수 등의 탄압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2.3 문화정책 표방기(1919년말 ~1931년 만화)

<그림8>은 1922년 동명에 실린 시사만화로 작가는 밝히지 않고, 철소(鐵笑)라는 표현으로 만화를 표기하며, '둘러치나 메어치나(헌병의 행학(行虐)이나, 순사의 행학(行虐)이나)'라는 표현을 통해 3·1운동이후 문화정책을 표방하며, 치안병력을 헌병에서 경찰(순사)로 바꾸었으나, 그 행포와 악랄함은 다를 바 없다는 일제 통치체제의 기만성을 폭로한 작품이다.

1920년대 한국근대만화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문화·정치적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한 컷 시사만화, 또 하나는 독자들의 신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흥미위주의 생활만화 중심의 네칸 오락만화, 마지막으로 일제의 탄압이 다시 가속화된 1920년대 후반, 시사만화의 퇴조와 더불어 나타난 해학적이고 세태풍속적인 만화가 그것이다. 1910년대 어린이 잡지를 중심으로 연재되던 어린이 만화가 일간지인 동아일보 등에서 매주 어린이 특집판을 꾸며지면서 어린

이만화가 활성화된다. 이러한 어린이만화는 30년대 후반에 가면서 유일한 만화로 남게 된다. 일제의 침략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어떤 만화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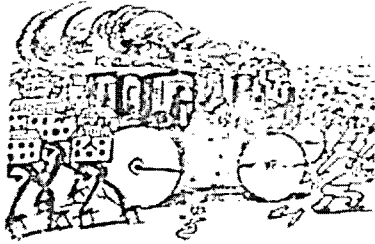
그림 8. 『동명』 1922.9.24



그림 9. 『동아일보』 1925.7.2

이 시기에 활발한 활동을 보인 만화가로는 이미 매일신보에서 작품활동을 했던 김동성을 꼽을 수 있다. 1919년 삼일만세운동을 기점으로 변화된 일제의 통치전략은 강압적 통치가 아닌 유화정책을 통한 회유로 바뀌었고, 이러한 시대변화 속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등 민족 언론지가 다시 등장하게 된다. 김동성은 귀국 후에는 『동아일보』의 창간호 만평을 비롯해 우리나라 최초의 4칸 신문만화(comic strips)를 발표하였다.



시대일보 1924.7.4
그림 10. 『시대일보』 1924.7.4

김동성은 시사만화에 술한 걸작들을 남겼다. 문화정치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내용의 '문화정치... 문어정치', 조선민족의 단결을 호소하는 '민족적 일치', 일제의 경제적 수탈을 표현한 '배우고 배속 비려먹네' <그림9>, 금융정책에 죽어가는 민중의 모습을 그린 '이것 보아라' 등 일제의 기만적 정치와 경제적 수탈을 폭로하고, 민족의 단결을 호소하는 다양한 만평들을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발표하였다. 또한 만화창작이론을 정리하고, 서화협회의 동료였던 이상범, 노수현, 안석주 화백 등에게 만화에 관한 교육을 통해 한국근대만화의 저변을 확대해 가는 등 한국만화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이 시기는 지방신문에서도 두드러진 만화작품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특히 시대일보는 창간호부터 해외연재만화를 최초로 국내 신문에 발표하면서 대중들의 이목(耳目)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시대일보는 초기에는 시사만화를 연재하지 않았으나, '지방만화', '시대만화'란을 설치하여 독자투고를 받아

적극적인 시사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세태를 풍자하는 만화가 주를 이루었는데, <그림 10>을 보면 일본인들의 주택이 늘어나면서 서울에서 쫓겨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고, <그림 11>는 '고르지도 못하다'라는 표현에도 보이듯이 서민들의 차압품이 가득한 수레와 큰 돈자루를 들고 휘파람을 불며가는 부자의 모습을 그렸다. 독자투고를 받아 연재를 하는 만화답게 <투고 환영(投稿歡迎)>이라는 내용이 만화 내에서 보인다.



그림 11. 『시대일보』 1924.7.6

2.4 한반도 병참기지화 시기(1931년 ~1945년 해방까지)

이 시기 국내의 상황은 식민지 시기 중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다. 이시기 만화의 특징은 생활만화 혹은 어린이 만화 중심의 만화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국내 만화가에 의한 친일 만화의 등장이다. 30년이 넘는 식민지 통치는 조선의 독립을 바라는 다수의 지식인층에게 절망감과 열패감을 안겨주었다. 더욱이 중일전쟁(1937년)의 승리는 조선의 독립이 희망이 없어보이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조선의 지식층이 가장 많이 친

일적 행태를 공공연하게 보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다. 해외에서의 독립운동 등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내에서는 체념으로 무기력하게 현실에 안주하거나, 조선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내선일체(內鮮一體)'이라는 미명하에 조선인과 일본인은 모두 황국의 신민이라는 허울에 동조하고 고무 찬양하는 지식인층이 다수 등장한다. <그림 12>은 어린 딸이 온 가족을 깨워 일본 천황이 있는 궁성을 향해 동방요배(東方遙拜)¹⁰⁾를 하는 내용으로 당시 내선일체를 강요하는 일제의 식민통치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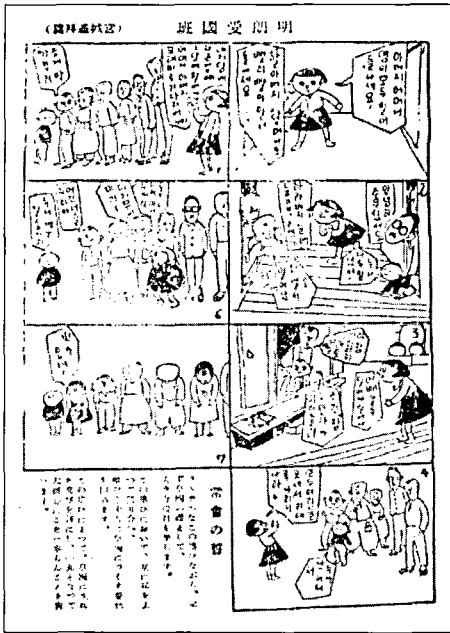


그림 12. 『조광』 1941. 6

10) 일제는 이른바 '황국신민(皇國臣民:일본 국왕의 백성이라는 뜻)' 의식을 불어넣으려고 '동방요배(東方遙拜)'라 하여 국왕이 있는 동쪽을 향하여 '최경례(큰 절)'를 하게 하고, 또 '황국신민의 맹세'를 외게 하며, '단발령'과 '신사참배'의 강요, 한국어 교육의 금지 등으로 시작하여 민족말살을 위한 식민지교육을 단행하여 나갔다.



그림 13. 『신시대』 1941. 10

특히 1930년대 후반은 가속화되는 세계대전의 확산 속에서 천황의 부름을 받아 '성전(聖戰)'의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선전활동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 대중문화 장르로서 다른 어떤 장르보다 파괴력을 갖는 만화도 예외 일 수는 없었다. 이 시기에 많은 문인, 화가, 영화인들이 적극적인 친일세력으로 전향하게 되고, 이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면, 안석주는 대표적인 친일잡지 중 하나인 『신시대(新時代)』의 표지 그림을 그렸는데 천황이 있는 궁성을 향해 절을 하고 있는 작품인 「목도」나 철모를 쓰고 비행기를 들고 있는 어린이와 어머니의 나들이를 그린 「교외」를 통해 천황에 대한 충성과 철모를 쓴 어린이 그림으로 자연스럽게 군국주의를 표현하였다. <그림 13>은 현재덕의 그림으로 일제가 전쟁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구매를 독려하는 가두판매전에 대한 삽화이다.

“충후봉공(鎡後奉公)은 채권(債券)으로부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종로와 명동성당 등 서울시내에서 친일파들이 채권을 판매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11) 삽화는 종로 화신백화점 앞에서 윤치호, 이숙종이 가두판매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같은 호에 명동성당 앞에서 이광수, 모운숙, 신흥우 등이 1엔짜리 전시 애국채권을 가두판매하는 삽화도 함께 게재되었다. 이러한 작품 이외에도 1920년대 대표적인 만화가로 많은 작품을 남긴 노수현의 「멍텅구리」 12) <그림14>를 들 수 있다. 멍텅구리 운전수편은 ‘국력을 총동원하는 이때에 운전이라도 배워 전선에 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화로, 총독부가 1940년 9월부터 벌인 <전시국민생활체제 확립 기준안> 홍보의 성격을 띄고 제작된 만화이다. 시리드로 연재된 ‘라디오체조편’이나, ‘알뜰살림편’도 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신체제 옹호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이 시기 친일작가들의 작품은 대부분 성전(聖戰)의 참여를 찬양하고, 후방에서의 보급을 위

11) 1941년 9월 7일 저명한 친일파들이 모여 ‘성전완수’를 위해 ‘채권가두유격대’를 조직했다. 이날 76명의 친일파들이 조를 짜서 서울 시내 12군데로 흩어져 어깨띠를 두르고 채권가두 판매에 나섰다. 『식민지 조선과 전쟁미술』, 민족문제연구소, 2004, P. 198

12) 노수현의 <멍텅구리>는 <동아일보> 최초의 풍자오락만화로 지목되는 인기 연재 4칸 만화(1924)를 이은 것으로 『신시대』에서는 6쪽이나 할애하였다. <운전수편>, <폐품회수>, <알뜰살림> 등 매회 제목을 달아 그린 46칸짜리 중편 만화격이다. 이 만화는 전시 후방에서의 건전한 국민총력생활로 창간호의 <운전수편>을 보면 '50대의 멍텅구리가 친구와 함께 새해를 맞아, 국력을 총동원하는 이때에 나라 위하는 길을 찾자며 운전수가 되어 돈을 벌어 국방헌금을 낸다'는 반도의 황국신민으로서 해야 할 '보국의 길'이 그 내용이다. 한 쪽이나 두 쪽에 그려지는 시사만평은 주로 현제당이 담당하였다. 이는 1941년 10월호부터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미, 영제국을 패도시키려는 일본 군국주의의 의도를 반영한 것과 총독부의 선전계몽을 대신해주는 것들이다.

출처 : <http://blog.naver.com/one2only?Redirect=Log&logNo=80018208229> / 이태호, 「1940년대 친일미술의 군국주의적 경향성」, 쉼처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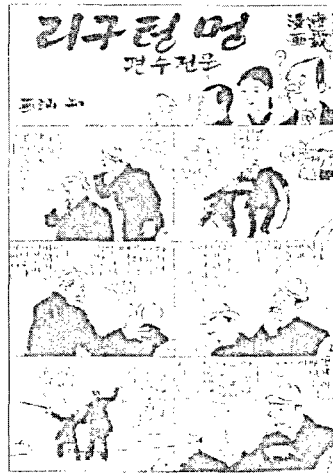


그림 14. 노수현, 『신시대』, 1941.3



그림 15. 일송 최영수, 『신동아』, 1934.11

물론 이 시기의 만화가 모두 친일만화 일색이었던 것은 아니다. 일제에 대한 비판을 담은 시사만화를 쉽게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생활만화 및 세태만화 들은 다양하게 보인다. 김규택의 ‘모던춘향전’은 당시의 감각에 맞게 춘향전을 새롭게 각색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신동아(新東亞)』, 『별건곤(別乾坤)』, 『여성(女性)』, 『학등(學燈)』

등에도 다양한 만화작품들이 연재되었다. 특히 이 시기의 만화는 생활만화가 많이 발표되었는데, 보너스(상여금)와 연결된 세태풍자가 많았다.

당시 어려웠던 사회상을 반영하는 다양한 소재 중에 유독 이 주제가 많았던 것은, 빈곤한 생활 속에서도 작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급여 이외에 지급되는 보너스를 탈 때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15>는 서민의 애환으로 보너스를 받아도 빚쟁이에게 몽땅 뺏길까, 변장하고 돌아가는 셸러리맨과, 혹시 헛튼 곳에 쓸까 우편을 통해 집으로 송부한 보너스에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 등을 담고 있다. 모던 춘향전과 같은 오락만화나 보너스 희비극 같은 세태만화 이외에도 1930년대 초기까지는 신동아를 통해 세계의 정세와 한반도의 상황 등을 표현하는 만화가 게재되었다. 물론 이 만화작품에는 직접적인 시사성을 띤 작품보다는 세계의 정세를 보여주는 해외만화를 소개하거나, 파편적인 세계상황을 담은 작품이 주를 이루었다는 한계는 지니고 있었다.

국내 출판환경이 끊임없는 검열과 감시 속에서, 그리고 군수물자 징집으로 인한 생필품 등의 품귀 현상 등으로 출판저작물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들은 좀더 자유롭게 다양한 작품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그림 16>은 연해주에서 격일간으로 발간된 기관지 『선봉』에 게재된 작품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사슬에 묶인 조선의 해방을 외치는 조선공산당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선의완전한독립, 조선에서의 토지혁명의 완성
토-농 스베트주 권의수민을 위하여 투쟁하자!



그림 16. 『선봉』, 1934. 3. 1

3. 한국 근대만화의 조형적 특징

한 시대의 만화를 분석함에 있어, 그 내용적 측면만큼 중요한 것이 표현기법인 형태적 측면이다. 즉, 한국 근대만화에 나타난 선의 특징, 연출 및 구도에 대한 문제, 초기 형태로 나타난 기호의 표현과 상징의 문제, 한국 전통회화의 양식에서 이어져 온 표현양식이 근대만화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계승되고 재구축되었는지의 문제와 해외만화의 유입과 영향으로 표현된 근대만화 형태의 특징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1 말칸 - 광고를 차용한 만화기호의 형성



그림 17. 『대한민보』
1909.9.14



그림 18. 『대한민보』
1909.12.5

만화의 형식적 측면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만화 속에 형상화되어 있는 만화기호일 것이다. 만화기호는 ‘효과음’, ‘효과 배경’, ‘말칸’, ‘칸의 형태’ 등 다양하지만, 한국근대만화 초기에는 이러한 부분이 거의 표현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말칸’¹³⁾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만화 속에서 ‘말칸’은 시각매체이고 활자매체인 만화가 소리를 담아내는 중요한 연출기호라 할 수 있다.

13) 이 글에서 필자는 ‘말풍선’ 대신 ‘말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말칸’에 대한 용어는 초기 양피지의 두루마리 모양의 물체로 나타나고 보통 풍선 모양으로 표현되며, 프랑스어로 ballon, 영어로는 balloon으로 표현되면서, 국내에서도 말풍선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다양한 연구와 용어 정립이 시도되어 왔고, 특히 이미 형태가 ‘원, 네모, 번개모양, 구름모양’ 등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말풍선이라는 형태중심의 표현보다는 만화연출의 한 부분으로 ‘등장인물의 대사나 생각만이 아니라 내용의 설명까지도 담아내며, 만화 속의 그림과 구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로, 만화 기호의 하나로써 작가와 독자 사이에 상통하는 상징적 언어이다.’라고 표현된 말칸에 대한 용어정의를 참고로 사용하였다. 특히 한국근대만화에서는 달린 형태의 ‘말칸’ 등장도 초기에는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형태적 측면의 말풍선 보다는 연출기호의 하나로 표현되는 ‘말칸’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유의미하다고 본다. 안수철 『만화연출』, 글은그림밭, 1996, p. 204~210



그림 19. 『만세보』 1907.3.31



그림 20. 『대한민보』 1909.11.3

초기 한국근대만화에서는 ‘말칸’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대화체의 만화에서도 글과 그림의 결합은 평면적으로 나열되어 표시되었다. 만화 형식의 측면에서 대화체 형식의 말칸의 형태가 초보적으로 등장한 것이 『대한민보』 창간호의 삽화에서 ‘신사의 입에서 분수처럼 뿜어 나오는 선’을 활용하여, 창간의 취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대화체의 표현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주로 그림을 설명하는 설명문 형식으로 글이 표현되다가, 대한민보 1909년 7월 31<제43호>에 보면 등장인물의 대화가 두 사람의 얼굴에서 일직선으로 표현되는 작품을 볼 수 있으며, 제78호<그림 17>에는 담뱃대의 선을 이용하여 대화체가 표현된다. 대한민보에서 말칸 형식이 정식으로 사용된 것은 제140호<그림 18>에 입에서 두개의 선이 나와



그림 21. 『경성신보』 1908.6.12



그림 22. 『대한민보』 1909.7.25

후에 등장하며, 옷감에 물을 들이는 물감을 광고하는 두 아낙의 입에서 일직선으로 뿜어 나오는 말칸의 광고 삽화<그림 19>는 이미 만세보에서 1907년에 등장하였는데, 이후 대한민보 만평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광고의 형태에 영향을 받은 부분은 또 다른 사례도 찾아 볼 수 있다. 아래의 <그림 21>의 광고는 경성신보에서 1908년에 발표된 광고들이다. 이러한 이미지 자체를 말칸으로 이용하여,

대화를 감싸고 있는 형식의 등장이다.

이 시기 대한민보 속에서 표현된 말칸의 가장 큰 특징은 삽화에서 표현되는 말칸의 표현양식이 주로 그 이전의 만세보나 대한민보 내의 광고 삽화에서 사용되었던 형태를 차용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위에서 예로 든 140호<그림 18>에서 보이는 말칸의 형태는 대한민보 광고 11월3일자의 '補血'이라는 약품 광고<그림 20> 이

내용을 담는 방식은 대한민보에서 그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보 1909년 7월25일 삽화<그림 22>는 '자부상피(自斧傷皮, 제 도끼에 다치다)'란 단어를 사용하여 당시 항간에 돌던 이완용에 대한 소문을 풍자한 만화이다. 이 광고들이 어디서 제작되었는지, 한국만화는 아니라도 영향을 미친 만화작품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광고 삽화의 형식이 한국 근대만화의 형식을 구축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

3.2 은유와 비유를 통한 이미지의 상징화

만화의 형태적 특성에서 중요한 부분은 과장과 왜곡을 통해 집약되고, 은유적으로 형상화된 이미지화이다. 즉, 작가의 풍자정신이 이미지를 통해 한눈에 현실보다 더 현실세계를 담아 표현되어야



그림 23. 『대한민보』 1909.8.11

한다고 본다. 특히 이것이 한 컷의 시사만화인 경우 이 이미지화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또한 이는 만화에서만 보이는 특성이라기보다는 한민족의 삶에 면면히 흐르는 해학과 풍자의 표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비유와 생략의 미(美)속에서 보다 큰 깨달음을 담아내는 민족적 특성의 표현이라 본다.

<그림 23>은 은유적 풍자성이 그 어떤 작품보다 뛰어난 만화이다. 대한민보에 실린 「뱀에게 먹힌 두꺼비」라는 이도영의 작품으로 '나쁜 인연(惡因)은 결국 바른 결과로 돌아온다.'는 설명을 담아, 뱀(일본)이 두꺼비(한국)를 잡아먹지만 결국에는 뱀의 몸 안에서 새끼를 낳는 두꺼비가 뱀을 잡아먹으며 자란다는 내용의 삽화를 실어, 비록 지금 힘이 없어 일제의 무력에 굴복하더라도 결국 끝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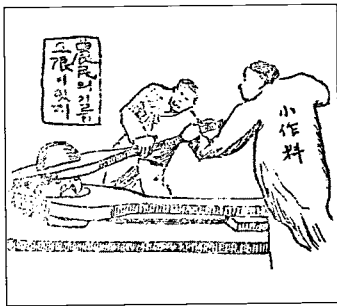


그림 24. 『개벽』 1923. 2

싸워 주권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대한민보』
<1909년 6월 16일> 발행 신문에
제도

제국주의(호랑이)의 침탈 속에서도 굳건하게 한국 민중(아기)이 취해야 할(젓) 것들을 받아들여, 힘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만화가 게재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비록 제국주의의 문물(文物)이지만 받아들여 개화(開化)·계몽(啓蒙)을 통한 부국강병을 도모해야 한다는 개화파 지식인들의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보에 연재된 이도영의 '남의 흉내', '벌거벗고 환도찾군' 등 친일파에 대한 비판이나, '뱀에게 먹힌 두꺼비' 등의 작품에서는 이미지의 과장이나, 촌철살인의 변칙이는 아이디어들을 볼 수 있다.

<그림 24>은 개벽에 실린 시사만화로 '농민의 기름도 한(限)이 있지'라는 표현으로 높은 소작료

에 피폐할 때로 피폐해진 농민의 삶을 기름뜰에 넣고 쥐어짜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비유나 은유를 통한 작품 활동은 한국근대만화에서 다양하게 보인다. 이러한 은유와 비유를 통한 작품 제작은,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해학과 상징이 주는 묘미(妙味)를 삶 속에서 늘 함께했던 한국인의 태도가 작품 속에서 녹아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한국근대만화의 경우 은유나 풍자에 있어, 부패하고 무능한 대한제국의 정치적 실정(失政)이 조선이 식민지화 되고, 주권을 상실하게 된 중요한 원인임에도 국왕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 캐리커처 등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¹⁴⁾

이는 유교문화의 전통 하에 뿌리 깊게 박혀온 왕권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라고 본다. 근대 한국만화가 민족의 계몽과 근대화를 통한 새로운 독립국가를 꿈꿨지만, 권위주의의 폐해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당시의 한계가 시사만화의 이미지화에 커다란 벽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3.3 연출기법 - 칸, 칸새

만화연출기법에서 칸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초기 한국근대만화의 경우 1920년대 초까지 거의 칸 만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 이후 다양한 칸의 활용을 통해 보다 독특한 만화연출이

14) 한국사회에서 최고 지배권력에 대한 풍자 캐리커처가 등장한 역사는 무척 짧다. 이는 지배권력에 대한 풍자를 반역(反逆)으로 보는 권위주의 사회가 갖는 억압의 구조 탓도 있지만, 작가 스스로도 뿌리 깊게 배인 유교의 전통 속에 '지배층은 백성의 아버지'라는 의식적 자기 검열 탓도 있었다고 본다.

표현되는 작품들이 보인다.



그림 25. 「학등(學燈)」, 1935. 3

<그림 25>은 안주홍의 작품으로 매칸마다 번호를 적어 놓고, 읽는 방향을 알려주지만, 첫째 칸에서 보이듯이 '1에서 보던지, 7에서 보던지 아모데서 보아도 상관없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인과관계로 연결된 일상의 일화를 코믹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빛쟁이에게 독축을 받아 화가 난 가장이 화풀이를 부인에게 하고, 부인은 며느리에게, 며느리는 큰 아들에게, 큰 아들은 동생에게 하고, 결국 막내가 화풀이로 걷어 찬 강아지가 빛쟁이에게 덤빈다. 결국 돌고 돌아 처음 원인을 만든 곳에 돌아온다. 특히 이 작품은 펜으로 작품을 그린 것이 아니라, 판화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품의 윤곽선이 굵게 표현되어, 캐릭터의 독특한 조형성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그림 26>은 매일신보에 1918년 2월 10일에 개

재된 만화로 서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생활곤난'이라는 표제로 담아낸 작품이다. 가운데 울고 있는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들의 모습을 네 칸에 나누어 표현한 만화로, '생기는 것은 쥐꼬리만 한데, 모든 가족들이 저마다 원하는 꿈을 꾸는 모습'과 '울고 있는 가장'의 모습을 대비시켜, 독특한 칸의 형태를 통해 표현한 재미있는 작품이다. 이미 한국근대 만화 속에서 이러한 다양한 칸 연출이 독특한 작품들을 많이 만나 볼 수 있다.

『동아일보』 1938년 신년호에 실렸던 이상범의 <인정세태> 만화 특집이나, 김규택이 1933년 『별건곤』에 실은 '꽃불견 세태' <그림 27> 등은 모두 독특한 칸 연출로 재미를 더하고 있다.



그림 26. 「매일신보」, 1918. 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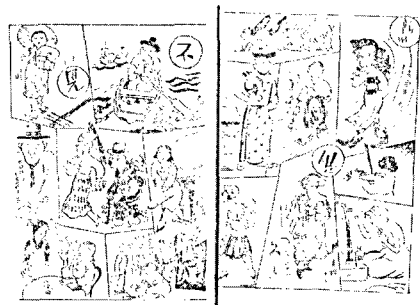


그림 27. 「별건곤」, 1933. 7

3.4 글과 그림의 관계



그림 28. 『편지』, 1904.23

서구 시사만화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그림 28>는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직전 한국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는 일본과 러시아의 모습을 담고 있고, 그 줄다리기 사이에 끼여 비명을 지르는 한국의 모습을 통해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이웃나라를 유린하는 강대국의 이기주의를 부각시키고 있는 그림이다.¹⁵⁾ <그림 29>과 <그림 30>의 작품은 이미지만으로도 전달하고자 하는 풍자의 내용을 강하게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은 그림과 함께 글을 삽입하여 보다 강한 의미 전달을 연출하고 있다. <그림 29> 「민켄토의 짚음(民犬黨吠)」은 일본의 자유민권운동이 크게 성장한 모습을 거대한 개로 상징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꼬리에 'R. of the P.'는 'Right of the People(민권)'을 표현한 것으로 정부가 아무리 누르고 탄압해도 성장을 막을 수 없는 당시 시대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좀더 자세한 상황설명을 '민켄토의 짚음'이라는 표제아래 글로 설명하고 있다.

15) 유포토 고이치, 『일본 근대의 풍경』, 그린비, 2004, p.135



그림 29. 『마루마루친분』, 1880.27

또한 <그림 30>은 대한민보에 실린 「기른 개가 발뒤꿈치를 물어」라는 이도영의 작품으로 회초리를 들고 개를 내리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을사오적'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를 담고 있다.

서구만화에서 글이 작품 속에서 연출의 한 부분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연재만화부터이다. 한국 시사만화의 경우 한 컷의 만평 속에 글과 그림이 조화를 이루어 작품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그림 30. 『대한민보』, 1910.6.24

한국만화 뿐 아니라 서구의 영향을 받은 일본 만화에서도 한국의 만화와 마찬가지로 시사만평에 글을 삽입하여, 보다 정확한 의미전달과 풍자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만평의 차이는 만화라는 장르가 해외의 신문물과 함께 동양에 영향을 주었지만, 동양의 전통적 양식과 결합하여 독특한 형태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글과 그림의 관계를 통한 연출기법은 안

석주의 만문만화에서도 돋보인다. 안석주의 만문만화는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 언론탄압 속에서 더 이상 신문 지상에 사회비판적인 만화를 실을 수 없었던 시기에 등장한다. 이러한 만문만화 형식의 만화(그림 31)은 안석영에 의해 처음 발표된 것은 아니다. “만문만화의 기원은 일본 ‘만화만문’에 두고 있다. 만화만문(그림 32)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오카모토 잇페이(岡本一平)라는 작가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오카모토 잇페이는 1913년 처음으로 만화만문의 작품을 발표했는데, 이 시기는 사회적으로 사상 탄압이 거세게 일고 있던 때였다.”¹⁶⁾ 즉, 일본의 만화만문과 조선의 만문만화는 시사만화의 억압



그림 31. 안석영 「1930년 녀름」 1930.7.15

속에서 직설적인 풍자에서 한 발 물러나 도시의 풍경,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가는 과정에서 사회 비판의 목소리를 담았던 만화의 한 형식으로, 한 컷 삽화에 짧은 글이 결합된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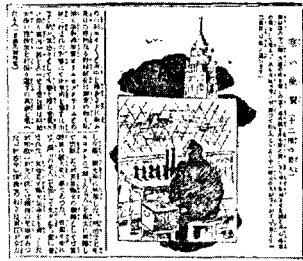


그림 32. 오카모토 잇페이 「썰렁한 노점-십이층의 파수꾼」, 1913.2.2

서구만화의 경우 세밀하게 그 당시 시대상황을 묘사한 카툰이나 상징화된 그림을 통해 세태를 풍

자한 캐리커처 등은 그 이미지의 표현만으로도 작가의 사상과 의도를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근대만화는 말과 글이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작가의 완성된 의도를 온전하게 표현한다. 특히 그 풍자와 해학도 이미지를 중심으로 표현되기 보다는 글과 그림의 결합을 통해 한 칸의 완결된 작품을 만들어 나갔다. 이는 한국의 근대만화에서만 나타나는 양상은 아니다. 일본의 만화나 중국의 만화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특히 한국보다 훨씬 이전부터 만화를 창작하고 지면을 통해 발표하였던 일본에서 앞서 이런 형태들이 구축되어 왔다. 19세기말 민중을 계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었던 만화는 초기 구축과정에서 서구만화와는 다른 길을 걸어왔고, 만문만화의 등장도 그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만문만화는 안석주 뿐 아니라 그 이후 최영수, 김규택 등 많은 만화가들에 의해 작품으로 창조되었다.

3.5 새로운 만화창작의 시도

김규택이 1932년 『第一線』에 연재를 시작한 「모던 춘향전」은 20세기 만화를 보는 듯하다. 고전인 춘향전을 각색하여 당시 시대상황을 접목시켰다. 대화도, 작품 속의 소품들도 고전이 아닌 1930년대 신문물과 결합된 트렌드를 반영한 고전 다시 읽기의 시도였다. 이는 1970년대 고우영의 삼국지 등에서 보이는 각색기법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고전을 현대의 세태와 연결시켜, 때로는 현실을 풍자하고 때로는 현실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패러디하여 대중을 사로잡고, 그 속에서 현실을 담아낸

16) 신병직, 「모던뽀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2003, p.9

새로운 만화창작의 시도로 큰 의미가 있다.



그림 33. 『제일선』 1932. 12

부음법(명암), 만화세목(배경) 등 11개의 단락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김동성의 만화 그리는 법은 작가가 본문에서 밝혔듯이 서양의 이론서를 기초로 하여 재작성한 글로 도판의 대부분은 서양이론서의 도판을 차용하였다.



그림 34. 김동성, 『동명』 1923. 5. 23
또한 1933년(소화 8년) 일본만화회가 출간한 만화강좌(漫畵講座/그림 35)¹⁸⁾가 조선총독부도서로 국내에 들어왔다. 이 책은 일본의 유명한 만화가 오카모토 잇페이(岡本一平)의 '잇페이 학관'¹⁹⁾을 출입하던 만화가와 기타자와 라쿠텐(北澤樂天)이 발행한 일본 만화잡지 『도쿄픽』의 작가들이 모여 작성한 만화이론서이다. 스키우라 유키오(杉浦幸雄), 곤도 히데조(近藤日出造), 이케다 에이치(池田永治), 나가사키 바텐(長崎拔天), 마에카와 센판

3.6 만화 기법서 발간을 통한 창작활성화

1923년 김동성은 잡지 『동명』에 「만화 그리는 법」 <그림 34>이라는 창작지침서를 발표하였다. 1923년 2월 25일 첫 연재를 시작으로 5월까지 11회나 계속 연재되었다. 그 후 「만화 그리는 법」은 1930년 『학생』 잡지에 11회를 5회 분량으로 요약 정리해서 「만화입문」이라는 제목으로 재 연재 되었다.¹⁷⁾ 김동성의 이 창작지침서는 만화 용구, 조형의 기초인 선, 인체의 각 부위와 신체 전체를 그리는 법, 경사체(원근법), 묘영법(채색),

18) 이 책은 1933년 12월에 출간되기 시작하여 6권인 1934년 5월에 출간된 것까지의 출판물이 현재 국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 잇페이는 1928년경, 만화가를 지망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만화의 진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만화가를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칭 '잇페이 학관'은 오늘날의 만화학교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잇페이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임이라는 살롱과 같은 분위기의 자리였다. 시미즈 이사오(清水 勳), 『일본만화의 역사』, 김광석 역, 신한미디어, 2001, P. 135

17) 김가현, 『김동성의 신문만화 및 만화이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미술사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2년, P.84

(前川千帆), 다나카 히사라(田中比左良) 등의 여러 작가들의 공저(共著)로 이루어진 이 책은 그리는 재료와 인쇄, 만화 스케치의 실례, 각 장르(어린이 만화, 가정만화, 정치경제만화, 의회만화 등)의 만화 그리는 방법에 대한 기술과 만화 배경 그리기 등 실질적인 창작지침에서부터, 명사(유명 만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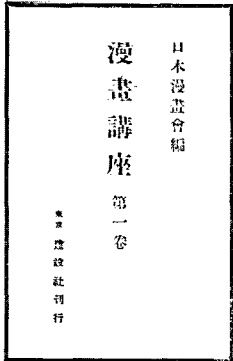


그림35. 『만화강좌』 1933

인터뷰, 일본만화계 정리 및 서양만화사 예술 등 창작지침서와 비평서를 망라한 방대한 자료를 지닌 책이었다. 1920~30년대 출간된 이런 미국과 일본의 이론서적들은 당시 척박한 만화창작의 환경 속에서 작가들에

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짧은 역사 속에서 타 장르와 구별되는 만화의 형태적 측면에 대한 축적이 미비하였던 한국근대 만화의 상황에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만화기법을 제공한 위의 서적들은 만화창작의 활력이 되었을 것이다.

4. 결론

본 논문은 태동기의 한국근대만화의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기존에 다양하게 분석되어온 한국근대만화의 내용적 측면이 아니라, 조형적 측면에서 한국만화의 특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하여 그 역사적 위상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근대사회를 1900년대 초 근대만화 출현에서부터 1945년 해방까지를 구한말, 일제의 무단통치기, 문화정책 표방기, 한반도 병참기지화 시기 등 네 개의 시대로 구분하여, 정치적 상황변화와 더불어 변화해 간 ‘만화’의 역사성을 고찰하였다. 이는 근대만화가 담고 있던 내용적 측면의 연구를 통해 근대한국사회에서 대중문화의 중요한 장르였던 ‘만화’의 사회적 영향력을 정리하고 한 것이고, 둘째는 새로운 문화 장르인 ‘만화’의 형태적 표현기법 구축과정의 역사적 의미를 정리해보자 한 것이다. 두 번째 주제로 연구된 만화의 조형적 표현기법에 대한 특징은 크게 타 장르 및 해외만화의 영향이라는 측면과 차용(借用)과 영향(影響) 속에서 재구축되어진 한국근대만화의 독특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미 근대만화 속에서 다양하게 보여지는 칸의 연출과 은유와 비유를 통한 이미지의 상징화, 글과 그림의 연출을 통한 해외에서 볼 수 없는 특징적 연출기법 등 다양한 특징들을 담고 있다. 또한 만화기법서를 통한 만화 이론의 정립 등 앞서가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음을 고찰하였다.

위 특징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인한다. 또한 국내신문 발행이 거의 중단되었던 시기에도 잡지 등의 대중매체의 발간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의 작성과정에서 충분히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여, 분석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로 삼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더불어 오랜 전통을 지니고 활동한 민간단체들의 기관지나, 해외에서 발간된 조선인을 위한 신문, 잡지 등 보다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이 출판물들과 국내와의 관계까지를 조명해보면서 근대 한국

만화를 평가했다면 좀더 풍부한 해석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부분도 향후 지속적인 자료발굴을 통해 한국근대만화의 보다 풍부한 특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택수, 『꽃가치 피어 매혹케 하라』, 황소자리, 2005
- 김진송, 『서울에 만스홀을 許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4
- 만화 정신전 기획위원회, 『만화정신』, 1986
- 백성현·이한우, 『푸른눈에 비친 하얀 조선』, 새날문화사, 1999
- 손상익, 『한국만화통사(상/하)』, 시공사, 1999
- 신명직,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2003
- 윤영옥, 『한국신문만화사 1909~1995』, 열화당 미술선집50, 1995
- 이해창, 『韓國時事漫畫史』, 일지사, 1982
-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역사, 2003
- 최 열, 『한국만화의 역사와 만화 대중화운동론』, 만화정신, 1986 『한국만화의 역사』, 열화당 미술문고 603, 1995
- 민족문제연구소, 『식민지 조선과 전쟁미술』, 2004
- 로저새빈, 『만화의 역사-Comics, Comix, & Graphic Novels』, 글논그림밭, 2002
- 루돌프 아른하임, 『미술과 視知覺』, 홍익사, 1981
- 스콧 매클루드, 『만화의 이해』, 고재경·이무열 옮김, 아람드리, 1998
- 시미즈 이사오, 『일본만화의 역사』, 신한미디어, 2001
- 요모타 이누히코, 『만화원론』, 김이랑옮김, 시공사, 2000
- 유모토 고이치, 『일본 근대의 풍경』, 그린비, 2004
- 클로드 몰리에르니·필리프 델로, 『연대기로 보는 세계만화의 역사』, 다섯수레, 2003
- Harrison R, P., 『만화의 커뮤니케이션』, 하종원 옮김, 이론과 실천, 1997
- 일본만화회편, 『漫畫講座』, 동경건설사간행, 1933(소화8년)
- 田口鏡次郎, 『現代漫畫大觀 - 동서만화집』, 중앙미술사, 1928(소화3년)
- 김규현, 『김동성의 신문만화 및 만화이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2
- 백성현, 『구한말 激動期를 풍자諷刺한 서양 시사만화』, 인문사회연구원(제3호), 2000
- 손상익, 『한국 신문시사만화사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4
- 임청산, 『만화예술의 성립과 그 발전』, 공주전문대학논문집(16호), 1989
- 장승태, 『20세기 전반 대한민보와 동아일보의 시사만화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2002
- 정희정, 『대한민보의 만화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0

ABSTRACT

A Study on Artis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Modern Cartoon

- Centering on the field of modeling in the period from the early 1900's till 1945 -

Kim, Jong-Ok

On this treatise , we analyze the characteristic of a cartoon secured it's position as new popular media of popular culture in Korean modern society.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larifying the social meaning of cartoon for formulating historical position of Korean cartoon. For a cartoon expand the sphere of research as a study, and secure the position as a unique popular culture genre in Korean society , we need to consider and ensure historical position which Korean cartoon had from the quickening period of it.

As a visual culture, a cartoon realized stately the purpose of communication media at that society which had high illiteracy rate. In this upheaval at Korean society , the appearance of modern cartoon had became very important measure of propaganda and education for enlightened intellectuals who had enlightened the people and endeavored to regain sovereignty. Conversely, it also had became a measure of pro-Japanese. Also, it was important measure of securing a reader to a publishing company managed a media for commercial gain.

Therefore, on this thesis, we judged that the quickening period of Korean cartoon is from the early 1900's (an occupation period of Japan) till 1945 (the day of liberation), and found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cartoon on basis of this period.

Key Word : Korean Modern Cartoon, Modeling, History of Cartoon

김종옥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만화영상전공

(110-5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38

Tel : 019-213-7057

jokim93@paran.com